

칠죄종 (七罪宗)

1) 교만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교만은 불신의 근원이 됩니다.

2) 인색

재물을 지나치게 중시할 때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낭비도 죄가 됩니다.
재물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낭비할 때
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물신(物神)이 됩니다.
재물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쓰여야 합니다.

3) 미색

성적쾌락의 무질서로부터 오는 죄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남녀의 관계는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쾌락의 도구로 삼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느님모습을 지닌
인간존엄성은 상실되고 맙니다.

4) 분노

복수하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5) 탐도

과음이나 과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은 질투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7) 나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싫어하는 게으름을 뜻합니다.
나태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의 일곱 가지를 죄의 원천으로 봅니다.